

김제동 열린아카데미 사랑학 강연

“짠한 마음 있어야 친구 사귈다”



방송인 김제동 씨가 11월 2일 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특유의 입담과 솔직한 이야기로 웃음과 감동을 전했다.

우리시대 최고의 달변가 김제동 씨. 한때 승승장구하며 방송 생활을 하던 그를 요즘은 강연장에서 더 자주 보게 된다.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추모 공연 사회를 맡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쌍용차 사태 등 사회문제에 대해 적

극적으로 발언하면서 그의 인동에 탄지를 거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김제동 씨가 트위터에 올린 몇 줄의 문장과 사진은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 쓸쓸한 기사거리가 되고 있고, 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부르고 있다.

특유의 입담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김제동 씨가 11월 2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청년 열린아카데미를 찾았다. ‘우리 세대의 옛지나 사랑학’이라는 주제 안에서 그는 사회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 등에 대해 풀어내었다.

이날도 역시 그는 웃음으로 이야기를 풀고, 감동으로 이야기를 마감했다. 이날 진행된 강의는 영화배우 김여진 씨와 김제동 씨가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제동 씨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 가족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좌중을 폭소케 했다.

88만원 세대? 88만원 세대라는 것도 관습 같은 것이다. 스스로 깨어라. 그 말도 기성세대가 지은 것이다. 그들에게 욕을 퍼부어라. 요즘 “애들은 안 돼”라는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단군 할아버지뿐이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중심임을 잊지 말라. 관습을 깨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친구란? 친구란 두 개의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나의 고통을 자기 등에 짊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처럼 짜증나는 것이기도 하다. 친구는 오래보지 않아도 풀리는 사람이다. 친구와는 갈등 해결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만날 사람들은 또 만나게 돼 있다. 불경에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했다. 사랑이나 미움의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함몰되지 말라는 뜻이다. 편한 친구는 나중에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 많은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라.

어떤 친구를 찾아 사귀기보다 그런 친구가 되도록 본인이 노력해 보라. 굳이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나 한번 사귀어봐, 나 되게 좋은 놈이다’ 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법은? 연민이다.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가져보라. 이승업 선수가 돈으로 따지면 뭐가 불쌍하겠는가. 그런데 어묵 먹는 것 보면 불쌍해서 사주고 싶다. 수백억이 있어도, 어떤 지위에 있어도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이 연민이다. 아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연민이다.

꿈이란?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은 아이가 벽을 타고, 거미줄을 씌우고, 거미한테 물려도 보고, 이게 잘못된거? 그 아이가 스파이더맨을 꿈꾼다고 어긋나지 않는다. 우주선을 꿈꾼 누군가가 우주선을 만들 듯이.

자신의 꿈은? 내 꿈은 사회자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물에 떠돌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회를 볼 때면 이런 상태가 된다. 이상태를 오래도록 즐기고 싶다. 무덤 앞에는 비석 대신 마이크를 놓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라고 새길 것이다.

가족이란? 가족은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다. 때문 가족이 싫다. 하지만 내가 방송을 그만 두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옛날에는 일주일에 세 번씩 방송에 나왔는데 이제는 여기를 틀어도 안 나오고 저기를 틀어도 안 나온다”고 하던 짜증난다. 하지만 그게 가족인 것 같다. 가족은 내 삶의 근원이다. 또 우리 엄마 땀에 방송해야 한다.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채소 과일 365! 가족 건강 365!’

파라미타, 사찰음식으로 식생활 개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날로 풍뎡해지고 있다. ‘2009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전체 비만율은 13.2%, 고도비만율은 1.1%로 2008년보다 각각 2%, 0.3% 증가했다. 표준체중의 50%를 초과하는 고도비만율은 2006~2008년 0.8%에서 2009년 1.1%를 넘었다. 5년 전에 비해 중고생들이 키는 거의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몸무게는 2kg이나 늘어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학생 비만은 지방세포만 커지는 성인 비만과 달리 지방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성인 고도비만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또 성장과정에서 정신적인 위축감, 소외감 등도 문제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노동 생산성 약화나 의료비 증가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청소년 비만의 원인은 서구화된 식단과 학생 대부분 주 1회 이상 햄버거, 패스트푸드, 라면 등을 먹고, 운동부족과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학생 비만 줄이기 대책 마련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도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반 쪽 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가정이나 학교 식단에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서구화된 식단이나 맛별이 부부 자녀의 경우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청소년 단체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가 청소년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구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11월 13-14일 청소년 식생활 습관 개선과 가족 건강을 위한 채소·과일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SPT(Student 학생, parents 학부모, Teacher 교사)사찰음식 경연’을 실시한다. SPT 사찰음식 경연은 대구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족건강365운동본부와 함께 진행한다. ‘채소 과일 365! 가족 건강 365!’ 운동은 하루 3번, 67가지 이상의 채소·과일을 5가지 색으로 맞춰 먹으면 1년 365일 가족 3대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6대암에서 한국인의 5대 생활습관병인 고혈

압, 당뇨병, 비만, 심장병, 아토피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이번 행사는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와 경산 대경대학(총장 강삼재)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식생활 개선 및 비만 방지를 위해 채소 과일을 섭취의 중요성과 빈 그릇 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 놀이를 통한 칼라푸드(채소·과일)의 영양 기능 알아맞히기 등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한 퍼포먼스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요리 강습은 채소의 5대 영양학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지초등학교 채한나 영양교사가 한다. 요리 실습 프로그램은 대경대학 호텔조리과 김민숙 겸임교수의 지도로



사찰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나물과 채소만을 이용해 요리 실습을 하고 있다. (대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자료사진)

채소로 만들어진 식사, 취나물 잡채 만들기 등을 실시한다.

또 동화사에서는 사찰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놀이를 통해 채소·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교육할 계획이다.

손선용 능인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은 급식에서 고기요리에 들어간 채소조차도 먹지 않고 가려내고 있다”며 “음식을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 학생들이 고기와 야채, 과일 등을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특별히 가족이 함께 참가할 경우 부모님의 참가비는 무료다.

전남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지부장 김재기)는 11월 13-14일까지 전남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건강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는 200여 청소년과 가족들이 무공해 야채와 산나물을 직접 채취하는 과정부터 요리, 발우공양, 자연명상, 다도 등을 체험한다. 061-724-6277

이상연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TV, 3스크린 영상포교시대

불교TV(회장 성우)가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방송 및 VOD서비스, 교계소식을 볼 수 있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오픈했다. 불교TV는 스카이라이프, IPTV에 이어 스마트폰, 웹TV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3스크린 영상포교시대를 열게 됐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최신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영상 포

교의 발전을 마련했다.

최덕주 전략기획실장은 “10월 모바일 웹페이지 개설에 이어 웹TV까지 진출함에 따라 불자들에게 불교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촉매제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3스크린 시대를 맞아 태블릿PC(아 이패드, 갤럭시탭 등)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실시해 4스크린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KCRP 종교별 죽음관 고찰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은영)는 11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국비구니회관 범통사에서 종교별로 본 웰다잉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는 김기호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운동본부 교육위원, 조현정 목사 NCCK양성평등위원, 이경식 가톨릭대 중양내과 및 호스피스센터 명예교수, 원익선 교무, 김성자 천도교여성회 본부 교화부장, 이혜자 여성유도회 명예회장이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자살예방에 힘을 약속했다. 이성연 기자

불교 가족상담교육 지도과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전국비구니회는 11월 9-10일 전국비구니회관 대강당에서 조계종 비구니 스님 50명을 대상으로 불교 가족 상담 교육 지도과정을 진행했다. 강의는 9일 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으로 황수경 동국대 강사가 ‘신도 가족 상담의 심층이해’, 우희중 서울대 교수가 ‘불교의 생명관’을, 이영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현대의 다양한 가족과 가족 상담 지원’을 강의했다. 10일에는 가족상담의 이론과 비법, 불교적 가족 치료와 상담의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성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종)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쇼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이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 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았다 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희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얼마아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광수련원 043)905-8275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88번지)